교계 신문, '포교 · 비판' 정체성 확립해야

김두식 차장, '불교계 신문 실태' 논문 발표

〈한국불교학〉 제82집에 게재
2002년보다 회사 경영 악화
기자는 줄고, 업무 강도 높아
연령 고령화 · 재교육도 축소돼
교계 신문 대형화 · 기금 조성
기자들 처우 개선 우선돼야

불교계 신문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 포교와 비판 기능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하며, 기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직 불교계 기자였던 김두식 iMBC 마케팅사업팀 차장(동국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은 한국불교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불교학〉 제82집에 발표한 연구 논문 '불교계 신문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차장은 발표 논문에서 2002년 자신이 조사했던 불교계 신문 기자들의 보도체계, 전문성, 재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2016년 다시 조사해 비교 · 분석했다. 약 14년 사이 불교계 언론 환경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김 차장에 따르면 2002년 조사 당시에는 편집 · 사진기자 등을 제외하고도 75명이 취재 기자로 활동했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59명으로 인력이 줄었다. 취재 인력도 고령화됐다. 30세 미만 기자가 2002년에는 2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3명에 불과했다. 반면 35세 이상 기자는 2002년에는 19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7명으로 늘었다.

취재 인력이 줄었지만, 업무 강도는 강해졌다. 2002년 당시에는 주간 20~30매(29.3%), 30~40매(25.3%)를 작성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016년에 들어서면 40~50매(32.2%), 50매 이상(22%)을 작성하는 기자들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불교계 신문들이 지면을 늘리는 등 외형적 성장과 인터넷 신문의 발달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10여 년 사이에 기자들의 기사 작성 정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취재 과정에서 미치는 사내 · 외부 영향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났다. 2002년 조사에서 기자들은 사내 영향력 행사 주체에 대해 '자신의 언론관(41.3%)'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2016년에는 '데스크(33.9%)'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외부 영향력도 마찬가지였다. 2002년 기자들은 '독자(34.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2016년에는 '없다(30.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에는 12% 였던 '조계종 등 제종단'의 영향력이 현재는 27.1%로 증가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김 차장은 "2016년에는 더 열악해진 경영 환경으로 소유주인 제종단이나 스님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데스크 등에 대한 압박은 물론 해고 등에 대한 노출이 커지는 등 기자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재교육 역시 회사나 협회, 기관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당시 재교육을 받았던 기자는 56%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30.5%로 떨어졌다. 재교육 주최도 개인 비율이 21%에서 38%로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차장은 불교계 신문 발전 방안으로 △불교계 신문 대형화 및 기금 조성 △불교계 신문 정체성 확립 △신문 감시 · 견제 기구 설립 및 시민 수용자 운동 △신문 · 방송 매체 등 기자에 대한 재교육 상시화 등을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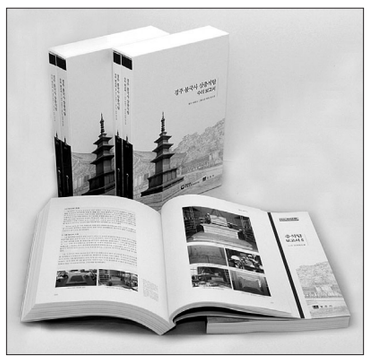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불교계에서도 언론 발전기금과 같은 특수 목적 자금을 형성해 불교 언론인의 상시 재교육과 해외 연수 등 기자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는 불교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국사 석가탑 해체 · 수리를 기록하다

국립문화재硏,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발간

5년간 수리 과정 담아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의 해체 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는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해체 수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권으로 구성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에는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수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권에는 불국사 연혁, 사업현황, 조사연구, 해체 · 조립과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해,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인 파손부재 구조보강, 무기질 재료를 활용한 보수 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2권에는 수리 전 · 후의 석탑 도면, 보존처리 자료, 수습유물 관련 자료 등을 담았다.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국보 제20호)과 함께 불국사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742년 불국사가 창건될 때 같이 건립되었다. 신라계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층 탑신석은 무게가 약 8톤으로 국내 석탑 중 가장 크다.

2010년 정기점검을 하다가 탑의 북동측 상층기단 덮개석에서 구조적 균열(길이 1,320㎜, 최대 폭 5㎜)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석탑을 전면 해체수리하기로 하고, 균열 원인에 대한 조사 · 분석에 들어갔다. 이후 2012년에 가설 덧집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체수리를 시작해 지난해 해체 · 조립 작업을 마무리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9월 경주지역에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겪으면서도 석탑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도 검증됐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가 석탑과 같은 석조문화재의 수리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술자료로써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고서는 전국의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문화재수리 관련 업체, 관공서 등에 배포하며,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아동문학 발전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불교아동문학회, 28일 학술대회

불교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 출재가 전문가와 학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이창규)는 오는 7월 28일 충남 아산 보문사서 '불교 아동문학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본지 연재 중인 신현득 동화작가가 '아미타경의 동화성 연구'를 주제 발표하며, 법공 스님(보문사) · 유한준 시인 · 남진원 강원아동문학회장, 임신행 동화작가, 곽영석 찬불가제정위 사무총장, 이계섭 음성동요학교장, 오해균 세광음반 대표가 주제별 토론자로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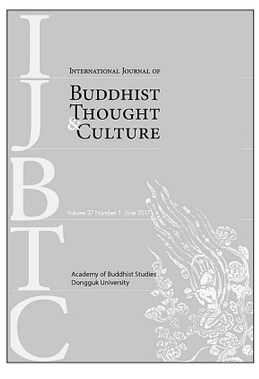
이창규 한국불교아동문학회장은 "평화와 사랑을 염원하는 불교 아동문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과 함께 함으로서 더욱 빛을 발한다"면서 "문학회원들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부처님 말씀을 동시와 동화로 연구하며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본 최신 연구 결과 '한눈에'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 27권 1호 발행

뮌헨대 등 저명학자 논문 수록
불교사본 연구 중요성 상기해



불교사본에 대한 세계 불교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문 국제저널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불교학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이하 IJBTC) · 사진〉 27권 1호 6월 30일 발행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발간주체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 이관된 이후 세 번째 출판이다.

이번에 발행된 〈IJBTC〉에는 '불교사본 연구의 최신 결과(Recent Results of Buddhist Manuscript Research)를 주제로 한 특집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그리고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독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괴팅겐대, 뮌헨대, 콜롬비아대, 고마자와대, 국립대만대, 중국 인민대 소속 대표연구자들이다. 국내에서는 연세대 소속 연구자의 서평이 게재됐다.

특집 주제인 '불교사본 연구의 최신 결과'에 대해 불교학술원은 "근대 불교학에서 문헌학은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주목받아 왔다. 문헌학을 토대로 수많은 불교학자들이 불교의 사상과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때문"이라며 "불교사본은 사상과 역사의 공백을 채우기도 하고 때론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이번 특집은 불교사본 연구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집논문 외에도 대승불교의 공과 해탈론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불교 맥락에서 바라본 화엄과 선에 대한 연구, 인지과학이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원효의 열반종요에 나타난 무정중생의 불성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이번 호에 실린 모든 논문과 서평들이 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사회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불교전문 국제저널인 〈IJBTC〉는 한국불교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2년 창립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IABTC)가 25권까지 발행을 주관해오다 세계적인 학술지로 도약하고자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발행을 이관했다.

현재,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캐나다 · 노르웨이 · 영국 · 덴마크 · 몽골 등 9개국의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며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인문 고전, 원문으로 만나고 싶다면

월정사, 탄허강숙 2학기 강좌 개설

불교와 동양 인문 고전을 전통 강원식 교육으로 접할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서울 종로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탄허강숙 2학기 강좌'를 진행한다.

강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9시까지 열린다. 강사로는 석지현 스님,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참여해 〈벽암록〉, 〈노자 도덕경〉, 〈삼국유사〉, 〈서장〉을 각각 강의한다.

강의 접수는 민족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8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과목당 20만 원. 4개 강좌 모두 수강 시에는 50만 원이다. 강의 인원은 25~30명, 선착순 마감된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 제83집 8월7일 원고마감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가 〈한국불교학〉 제83집 원고를 모집한다.

한국불교학회는 (가칭)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회의를 통해 제정한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통일안'에 따라 원고 작성을 요청했다. 간행일은 9월30일자이며, 원고 마감은 8월7일까지다.

한국불교학회는 잼스(https://kabs.jams.or.kr/co/main/jmMain.kci)를 통해서도 원고를 접수한다.

신성민 기자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 선착순 예약 주문하시는 사찰 10곳에 한해 무선 마이크 및 CD기(65만 상당)를 무료 보시합니다.

추가 설치 및 보시 품목

① 대출력 800 왓트 파워드 믹싱 앰프 (자체 USB탑제)	1대
② 입력 450W 대출력 용 스피커	1조
③ 무선 마이크	1대 (무료보시)
④ 최고급 CD기(5개 연속 사용)	1대 (무료보시)

무선마이크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